

# 학교 · 총학, 최종합의 성사 전망

## 실무협상 마무리 단계 ... 양측 입장 확정할 듯

학교당국과 총학생회(회장=주진안·국교4)가 이번 주 내로 실무협상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15일 공식협상 이후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실무협상을 통해 등록금 인상분 집행, 학교회계와 병원회계의 분리 등 학생회의 중앙요구안에 대해 상당 부분 입장 차이를 좁혔다.

이에 학교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상한 결

과에 대해 논의한 후 입장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는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담당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최종 합의문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단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과·학부 학생회장 등이 모이는 비상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교육환경 개선부분과 관련한 요구안은 상당부분 의견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는 이번주 기관지를 발행해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오는 29일 '학원자주화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총장실 점거 해제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는 이번주 초까지 학교측이 성명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불교병원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교수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또한 박종훈 교수회장은 "이번주부터 학교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박영석, 오세아니아 최고봉 등정

## 4.884m 칼스텐츠 ... 7월 유럽 엘브르즈 정복 나서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에 나선 박영석(체교19졸) 동문이 지난 9일 오세아니아 최고봉 칼스텐츠(4,884m) 등정에 성공했다.

칼스텐츠는 지도 상으로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지만 파푸아뉴기니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산악계에선 오세아니아 최고봉으로 통용된다.

이로써 박동문은 완공까지 유럽, 남극대륙 최고봉과 남·북극점을

남겨 놓았고, 모두 등정할 경우 세계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히말리아 14좌 완등,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을 이루게 된다.

박영석 동문은 7월 초 유럽최고봉 엘브르즈(5,633m) 등정을 위해 러시아로 떠날 계획이다.

한편, 박동문은 기금조성 문제로 등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북극점을 다음해 3월 도전할 예정이다.



대학을 살리자 ... '교수계약연봉체 철폐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는 지난 25일 중요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정책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2면(보도)

#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40주년

## 황석현·박은경·최빛나 각 부문 장원

본사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주최한 제40회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가 지난 25일 본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각 부문 입상자는 시부문 △장원=황석현(강원고3) △우수1석=김영민(안양예고2) △우수2석=이주영(무학여고3) △가작1석=황희정(안양예고3) △가작2석=김지현(이대부고3) △가작3석=김지윤(서울외고3), 소설부문 △장원=박은경(휘경여고2) △우수1석=정유선(수내고3) △우수2석=이운정(유성여고3) △가작1석=이소리(해화여고3) △가작2석=이정숙(용화여고3) △가작3석=윤지원(상명여

고1), 수필부문 △장원=최빛나(오류고3) △우수1석=김해린(정화여고3) △우수2석=채라다(한성여고3) △가작1석=양경연(중대사대부고2) △가작2석=기은혜(광명북고1) △가작3석=양선화(동화고3)이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은 △시=신경림 흥산선 문정희 △소설=윤후명 최시한 황종연 △수필=김택근 김호성 이종대이다.

한편,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40주년을 기념하는 수상작품집 '생각의 꽃-동국대학교 고교생 백일장 40년' 출판기념회가 지난 25일 상록원에서 열렸다.

### 총장선출관련 설문조사

총장선출준비위원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산업유통학)가 본교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선출관련 설문조사를 내일(28일)까지 실시

한다.

설문항목은 △총장선출 방법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 △총장이 갖춰야 할 덕목 등이며,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 교수회보지를 통해 발표된다.

# 축구부 "어느 팀이든 해볼 만하다"

## 강한 공격으로 정상 도전 ... 허리 약점 보강해야

프로스포츠클럽이 활발해지면서 고졸 선수들이 곧바로 프로무대로 진출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때문에 대학팀은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고, 경기의 질이 떨어지면서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에 본사 대학부는 태극학 감독 등 스포츠 관계자를 통해 본교 체육부의 전력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 1. 야구부 2. 축구부 3. 농구부

대학축구의 전력 평준화로 뚜렷한 강팀이 없는 상황에서 우승에 근접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 "어느 팀과 시합해도 해볼 만하다"는 김승기 감독의 말처럼 축구부는 부상이나 대진운이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

지난 2000년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이래 다소 침체에 빠지는 했지만 선수 보강과 함께 다양한 전술 훈련을 통해 오는 8월 열리는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전력을 가

다듬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평가받는 본교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과 더불어 대학축구를 이끌고 있는 상위권에 꼽힌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김광진 코치는 "동국대는 강한 공격력을 갖춘 팀이라 경기하기 즐겁다"며 본교를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다.

4-4-2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축구부는 한정환(국문4) 김지동(법4) 김한섭(체교2) 선수 등 발 빠른 미드필더들의 측면돌파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김승기 감독은 "주로 측면돌파를 통한 헤딩 공격을 선수들에게 주문한다"며 "상대에 따라 전술의 변화를 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장신(197cm) 포워드인 김선우(체교1) 선수와 일대일 능력이 뛰어난 방승환(체교2) 선수가 공격의 핵으로 이들이 포진한 공격진은 정상급이라는 평. 특히 장신의 이점을 살린 김선우 선수의 헤딩 공격은 상대 팀에게 위협적이다.

실전 경험이 많은 정인명(국문4) 이기형(체교3) 선수 등의 고학년 위주로 짜여진 수비진은

두드러진 약점은 없지만 잦은 부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김승기 감독은 "상대에 맞선 공간 확보로 공격을 차단하는 플레이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골키퍼 남민호(법4) 선수 역시 "공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비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팀의 약점으로 꼽히는 미드필드진은 공격이나 수비로 전환할 때 선수들의 빈 공간을 보완해주는 플레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패스하는 타이밍이 늦고 경기를 풀어 가는 선수가 없어 강팀을 만나면 힘든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드필드진의 강화를 위해 패스 훈련을 집중하고 있다.

언제든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축구부. 앞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뛰어주길 기대한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 야구부, 대통령기 대회 출전

## 다음달 3일 대불대와 토너먼트 첫 경기

야구부(감독=한대화)가 다음달 1일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6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 출전한다.

전국 24개 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본교는 다음달 3일 오전 12시 대불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야구부는 다음달 5일 추첨으로 16강에 먼저 안착한 건국대와 8강 진출을 겨루게 된다.

한편, 농구부(감독=최성오)가 6월 초 출전할 예정이었던 '전국대학농구연맹전' 1차대회는 월드컵관계로 취소됐다.

### 제185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85회 동국학원 정기이사회가 오는 29일 오전 11시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1년 결산 심의 △2001학년도 결산감사 결과보고 △감사 3명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 이사 선임 등이 논의된다.

### 한국 선, 무엇이 문제인가 30일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이 '한국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2시 90주년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간화선·묵조선·위빠사나 등 세 가지 선 수행법에 대해 발표·토론한다.

이와 관련해 불교문화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가지 수행법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불교 수행의 위상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리수

## 알파파 상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80%는 '아무 생각없이 쉬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때 '아무 생각없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의학적 실험에 의하면 우리의 뇌신경은 어떤 신호가 전달될 때에 자연스럽게 뇌파(腦波)가 발생하는데, 즉 아주 느린 델타파, 중간 정도의 세타파, 아주 빠른 베타파, 그리고 세타파와 베타파 사이에

해당하는 알파파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베타파는 사람을 긴장시켜서 고혈압이나, 면역기능저하, 기억력 감퇴를 가져오는 반면에, 알파파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기분 좋고 아주 건강하게 해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뇌를 인위적으로라도 알파파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좌선이나 명상이다.

현대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들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뇌를 바로 이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야만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보면 여러가지가 있다.

가령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숲속의 바람소리, 맑은 시냇물 소리, 시원한 파도소리, 눈을 밝는 소리, 새소리와 같은 것

을 들을 때도 우리의 뇌는 알파파의 상태가 된다고 한다.

반대로 각종 게이트를 비롯해서 계와 추적, 사법처리, 돈세탁, 비리의혹 등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베타파를 유발시켜 스트레스가 쌓이게 만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는데 일조를 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장계환  
불교대학 불교학과

### 지면안내

#### 4면 월드컵의 이면

월드컵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채 월드컵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이들이 있다. 월드컵이 진정한 '전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 5면 보는 소리, 듣는 영상

#### 8면 거리음속에 담긴 문화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 '뚝' 소리나는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사에서 배부 중) ②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및 선발 : 5월 30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사

##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 작품집 발간

### 생각의 꽃

우리는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동대신문사와 문예창작학과 주최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가 4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장원 수상작들을 모은 '생각의 꽃'을 출간했다. 고교생 백일장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본교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는 윤후명, 최명희, 안도현 등 한국문학을 빛낸 많은 작가를 배출해 오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진단

# 비대위 체제 지속돼 추진사업 미비

## 동아리 위기 연장선 ... 연합회 차원 활동 확대해야



올해는 비대위가 늦게 구성돼 동연제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 동아리 회원 중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최근 3년간 동연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유지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해, 학생들에게 널리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연의 이러한 문제는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18대 동연 역시 보궐 선거까지 의장 임후보자가 없어 지난 4월 어렵게 비대위를 구성했다. 올해는 특히 비대위 구성이 늦어 매년 3월 열리는 동연제도 개최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자

필사 사진(좌)

리는 공연 분과장이 겸직하고 있고, 8개 중 2개 분과는 아직 분과장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형편은 여전하다. 또한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월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동연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된 '동아리 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동연의 임원진은 저학년 때 각 동아리 운영위를 거친 고학년 학생들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신입회원 수가 감소하면서 고학년이 되어서도 동아리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동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 폭이 좁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초 2차 전통대회에서 연합회 차원의 2학기 동아리 홍보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정순(정외3) 비대위원장은 "각 동아리 활동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동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늘어나면서 동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신규 동아리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각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연이 앞으로 '사람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차원의 홍보활동 등을 통해 '동아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기자  
selljone@dongguk.edu

### 30·31일 차량2부제 실시 월드컵 경기 전일·당일

총무처(처장=황영수) 총무팀은 월드컵 관련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교내 차량을 단속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가 당일 날짜의 짝·홀수에 해당될 경우 운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단속 시간은 경기 전일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기가 진행되는 다음달 12·13일, 24·25일에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접수 오는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사범대(학장=정진환·교육과)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한다.

접수대상은 오는 8월 졸업예정인 사범대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자이며, 신청자격은 △교과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사범대 교과이수자의 경우 평점평균 백분율환산이 80점 이상돼야 가능하다.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사범대학 게시판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고 △사범대 학생=

소속 학과 사무실 △비사범대생=사범대 교학과로 제출하면 된다.

### 홈페이지 게스트하우스 게시요청 후 선별 등록

본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글을 게재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글 게시방법이 변경된다.

변경된 방법은 게스트하우스에 글을 쓰고 '게시요청'을 하면, 정보관리실 관리자가 한 시간 이내에 검토해 허가한 글만 게시판에 등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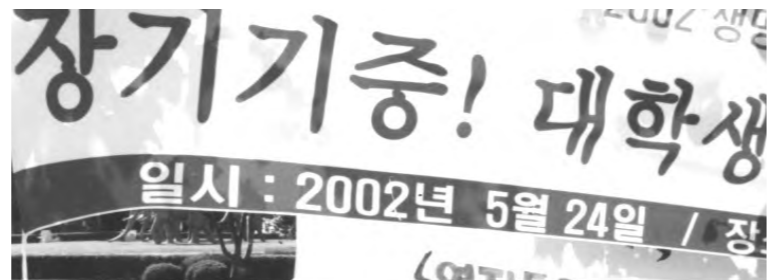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이종욱(정보관리학) 정보관리실장은 "게시판을 도배하는 글이나 근거없는 학교 비방 내용을 담은 글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전 강의실 에어컨 설치 6월 초부터 가동

총무처 시설관리팀은 지난주까지 전 건물 강의실에 78대의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2차로 30여대의 에어컨이 여학생실습 등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6월 초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천중 시설관리팀장은 "에어컨 작동은 학생자율에 맡겨진 만큼 전력낭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명나눔 ... 대학생 연합동아리 'lifeshare'와 생명나눔실천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교를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25명의 학생이 장기기증에 동참했다.

조슬기 기자 chaf55@dongguk.edu

### 제10기 서남총련 출범식 내일(28일) 송실대서

제10기 서울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남총련) 출범식이 내일(28일) 오후 6시 송실대에서 열린다. 13개 서남총련 신하 대학들이 참가하는 이번 출범식은 6·15 민

족통일대추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민경우 범민련 사무처장 초청 강연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펼쳐진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열리는 서남총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의장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며, 조영수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가하는 이번 출범식은 6·15 민

## 대학 공공성 요구 움직임 활발

### 교수·시민단체 ... 공대위 구성

대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수노조 민교협 등으로 구성된 '교수계약연봉제 철폐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는 지난 25일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의 대학정책을 비판했다.

대외사를 맡은 주경복(건국대) 사립대학교수회연합(사교련) 회장은 "정부의 관료적 통제 앞에 교수들이 단결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립대 발전계획·전문대 발전방안 전면 무효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등록금 자율화 반대와 교육재정 확충 △비정규직 교수들의 법적 신분보장 △교수사치권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대학구성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전국국공립대투쟁본부 대학노조 등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폐와 공교육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부는 국립대 민영화 등 교육시장화 정책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수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민연련 등 55개 시민단체는 '대학의 공공성 제고와 교수계약·연봉제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지난 15일 참여연대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을 시장화하는 교육당국의 반교육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대위는 교수계약·연봉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회 등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여러 시민단체가 가담하면서, 앞으로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us@dongguk.edu

## 총대 장학금문제 징계 결과 확정

### 윤재욱 전 의장 유기정학 3주 등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장학금 차명신청과 관련해 윤재욱(역교4) 전 의장이 지난 20일 유기정학 3주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상벌위원회는 이들을 빌려준 학생을 소개한 경영대 대의원장을 유기정학 1주의 징계를 내렸고, 이들을 빌려준 학생 2명은 처벌하지 않았다.

한편, 총대의원회(의장 권한대행=정석중·수교4)는 지난 17일 중앙

회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총학생회 선거기간과 같은 11월로 변경 △3월 선거의 경우 임기를 1년에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단과대 대의원장 후보 기준을 과대표에서 단과대 소속 재학생으로 확대 등이다. 또한 총대는 지난 24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 2002 전국 예비교사 한마당 개최

###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 마련 등 주장

교원 계약제 확대 저지와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 마련을 위한 '2002 전국 예비교사 한마당'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사련), 서울지역사범대학 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사협) 등으로 구성된 예비교사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한마당은 '교대·사범대의 전문성 훼손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진행했다.

첫째날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사련 출범식 △서사협 결의마당 '사범대 亂' △서사협 전사련 하나되기마당이 열렸고, 둘째날은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교육정책 강연회 등이 진행됐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교원 양성 수급정책 문제에 대한 예비교사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 회전무대

### 특별 고백

○...오후 8시 20분에 시작되는 야간 수업을 듣는 일부 학생들은 '이준손해'로 불만이 많다는데.

원래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10시 4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부 수업은 10시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야간 수업은 주간보다 30분 가량 짧게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던 시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야간 특별 혜택, 30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 제2의 점거

○...지난주 중강당 앞에는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줄을 이었다는데.

알아보니 방송제에 초대된 가수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든 것이었고.

행사장인 중강당에 입장하지 못한 일부 중·고생들은 진행요원에 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지나가는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여중고생들의 '오빠'를 보기 위한 본관 점거, 결국 실패."

### 겹치기 출연

○...팔정도 한 쪽에서는 눈에 힘을 주고 서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이윽인즉 여러 장의 플래카드가 겹쳐져 있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특히 행사일, 시간 등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 겹쳐져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심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내가 모르는 정보가 플라플 사이에 가득! 오빠 더 플래카드"

### 착각의 늪

○...지난주 계산관 앞을 지나가는 차들은 잠시 망설여야 했다는데.

학림관 소강당에서 공연하는 동아리가 공연 포스터를 바닥에 도로 안내표시처럼 붙여 놓아 혼선을 빚은 것이라고.

처음 본교를 방문한 운전자는 계산관 앞 계단 방향으로 차를 운전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사람이나 자동차 모두 구경오세요, 저희 공연은 자동차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2002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 학 명 (장학금액):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학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신입생장학, 보훈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가. 2002-1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0미만자는 추후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2-2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신청기간 : 2002. 5. 20(월) ~ 31(금)**
-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평가기준 : 이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1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 교학과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2) 동국참사범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증은 졸업시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재산세)세무표(비)과세증명서,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증명서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0"일인 경우 부, 모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함  
라.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1. 취 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2. 시행시기 : 2002. 6. 3(월) ~ 6.16(일) 중

### 3. 대 상 : 2002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4. 응답지역 : 200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5.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6.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히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중 일률로 5이상 답변)은 과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에는 5점적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은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화를 제한합니다.

교 무 처

## 2002학년도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 신청지역 :** 2002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 지격종류 :** 평생교육사 2급
- 접수기간 :** 2002. 5. 27(월) ~ 5. 31(금)
-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여론광장 → 단과대학계시관 → 사범대학 게시판에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학년도 하계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평생교육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3,4학년 재학생 중 급학기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한 자
- 접수기간 :** 2002. 5. 27(월) ~ 5. 31(금)
-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신청서 사범대 교학과 비치)
- 실습기간 :** 하계방학중 3주간

사 범 대

## 세계를 내 품안에

- 성공적인 유학·어학연수 노하우 -

- ▶ 일 시 : 5월 29일 (수) 오후 5~7시
- ▶ 장 소 : 학림관 J동 502호
- ▶ 내 용
  - 유학 및 어학연수 준비에 앞서
  - 비자, 비용과 현지생활 문제
  - 현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 연수 후의 활동 등

## 나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

- 시험답안·리포트 작성법 -

- ▶ 일 시 : 5월 28일 (화) 오후 5~7시
- ▶ 장 소 : 학림관 J동 502호
- ▶ 내 용
  - 일반 교양 수준의 레포트 작성하기
  - 자료수집에서 글쓰기까지
  - 어문·이공·사회과학·경상계열별 시험대처
  - 시험형태별 대응방안, 답안지 작성 원칙

학 생 상 담 센 터

### 사설 '월드컵 만능주의'는 안 된다

앞으로 4일 후면 세계인의 이목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집중된다. 경기를 치를 각국 선수들과 취재진들이 속속 모여들어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언론은 연일 월드컵을 떠들어대기에 바쁘다. 우리 역사상 다시 안 울지 모른다는 국가적 대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 월드컵과 관련해 불거져 나온 일련의 논쟁들은 어느새 우리사회에 만연한 '월드컵 만능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16강 진출 시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건의안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월드컵 만능주의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정쟁중단, 무과업 선언 촉구,

노점상 단속 등은 정부와 정계가 월드컵이란 듣기 좋은 이름아래 보여주기적 급급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월드컵 기간 중 무과업 유도는 노점상 단속강화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노동계의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월드컵을 빌미로 한 극심한 노동탄압 역시 문제다. 지난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드컵 기간 중에는 1인 시위마저 불허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나 정부가 생계형 노동자인 노점상의 단속강화, 노숙자 거취 강제이동 등의 극단적 조처를 취하는 것은 월드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국가 이미지와 연관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납득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잠시동안 불만을 억누르고 투쟁을 잠재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즘 언론에서는 월드컵이 불지 않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월드컵 '판'이다. 이렇듯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월드컵 만능주의는 정부나 언론에 의해 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를 비판하고 감시할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월드컵 개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가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이 진행될수록 우려되는 월드컵 만능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선거연령 하향조정 운동

## 정치권 이해관계 속 감춰진 권리

만18세. 그들에게 권리 없는 의무만이 존재한다(?).

근거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많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성인연령은 18세 또는 19세.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권 자격을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주어지지만 선거참여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져 선거권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선거법(제17조-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에 따라 같은 나이의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생일로 선거권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사회당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지난 21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

편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구성된 미래유권자연대는 광주 YMCA에서 '미래 유권자 선포식'을 갖고 18세 선거권 쟁취운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회 정인선 간사는 "대부분의 법률이 성인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권만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입법부는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무산되었다.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지



본교 총학생회장 선거와 지난 9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 투표모습. 만 19세 이상인 대학생들이 올해 위의 두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을까?

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민법(제4조-만20세가 성인이 된다)상 만20세가 성인이므로 선거연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40년 동안 선거연령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일부 보수 정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박혜린 사무처장은 "젊은 층의 경우 진보적 정치의식을 갖고 있어 이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보수 정당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정치권과 별도로 지난 11월 법무부에서 민법 상 성인의 연령을 만19세 이

상으로 개정하는 안을 이번 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문화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은 힘들어졌지만 오는 12월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전까지 활발한 운동을 펼쳐 관련법안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이러한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문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권리요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시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논단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최근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복원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청계천 복원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물론 후보에 따라 복원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지만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90%의 서울시민이 청계천 복원을 원하고 있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당선만을 위한 공약에 그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계천 복원 시 청계천과 종량천이 만나게 되는 지역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시민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 시 교통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공사로 인해 폐쇄한 주요 도로의 주변 차량 통행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나홀로 차량의 도시진입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최소화 될 것이다.

## 서울 살려낼 '청계천 살리기'

청계천이 하천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북개세대에겐 청계천 복원은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단편적으로 청계천의 복원을 제안해왔다. 물론 서울시는 거대한 구조물로 이미 굳혀진 청계고가와 북개도로를 걷어내어 청계천을 살리자는 주장을 타당성조사를 할 가치도 없는 불가능한 계획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말이다.

청계천살리기 연구회는 지난 2000년 9월 1일 제1회 청계천살리기 심포지엄을 개최해 청계천복원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제2, 3회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적인 복원계획과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교통, 재원조달, 맑은 물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주변의 재개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계천을 양재천과 같은 하천으로 복원할 것인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처럼 운하로 만들어 배가 한강에서 광고까지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천과 운하가 복합된 형태로 복원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청

계천 서울을 비롯한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교통정책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에서 실천한 도시교통정책을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서울시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서울 중심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 상태 청계천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복원 후에 장기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해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을 복원해 서울의 도심내에 있는 고적과 유물을 연결하고 한강을 따라 산재하는 유적을 재발굴해 고도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우리의 고유 문화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계천 복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당한 서울의 얼굴을 새로 단장해 서울시민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공적인 청계천복원은 21세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도시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수립의 모범이 될 것이다.

### 선거연령 ...

△18, 19세 국민을 성인으로 보고 있는 법률

등급이상 8등급이하 공무원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만18세이상이다.

### △외국의 선거연령제한 사례

미국 = 선거권 만18세, 피선거권 만24세 이상(주마다 선거연령이 달랐으나 1986년 만18세로 확정)

독일 = 선거권, 피선거권 만18세 이상

프랑스 = 선거권 만18세 이상, 피선거권 만23세 이상

일본 = 선거권 20세, 피선거권 25세 이상

1. 근거기준법 제51조 =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병역법 제8조 제1항 =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3. 민법 제801조 =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동의를 얻어 약혼(혼인)할 수 있다.
4. 고용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2항 =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5.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3조 = 8급 및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장영길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 화려한 축제의 사각지대 그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

피버노바. 이번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공인 축구공 명칭이다. 이 공이 어느 팀 골네트를 가르게 되느냐에 따라 월드컵 참가국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이 공에 파키스탄, 인도에 사는 어린 아이들의 땀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다.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용된 공인 축구공은 '트리콜로'였다. 하지만 후에 트리콜로가 아디다스 파키스탄 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아디다스 사는 거액의 아동보호기금을 내고 해명을 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축구 산업에서의 아동 노동력 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월드컵에서 어린이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축구공만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 월드컵 역시 아동노동 착취의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7일 인도에서는 '월드컵의 그늘에 있는

아동노동'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려 월드컵에 사용될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어린이들의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축구공은 물론 월드컵 로고 바느질을 하느라 수없이 바늘에 찔리거나 다치고 나중에는 지문까지 지워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국제축구연맹의 발표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들이 하루에 10~12시간 씩 일한 대가는 한국 돈으로 2천원 정도. 이와 관련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정책위원장은 "이 정

도 급여로는 아무리 물가가 싼 파키스탄, 인도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값싼 아동 노동력을 사용해 남게 되는 막대한 이윤은 고스란히 아디다스와 같은 초국적 의류회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돌아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월드컵 캠페인 2002'가 열려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 개막에 맞춰 국내 시민단체와 해외 NGO 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초국적 기업 반대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월드컵의 열기 한 편에는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채 월드컵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이들이 있다. 월드컵이 진정한 '전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편집자

이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월드컵이 개막하는 31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스포츠 다국적 기업의 아동노동 반대' 서명을 받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노동에서도 진정한 패어게임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캠페인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 월드컵에 왜 파업?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건 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등이 참여하면서 파업이 확산되는 듯 했으나, 상당수 노조들이 초기에 입단합을 마무리하면서 파업 분위기도 급속히 수그러들고 있다.

이처럼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한 파업이 오래가지 못한 데는 "월드컵이 바로 앞인데 파업이 웬말인가"라는 정부와 언론의 공세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월드컵 기간에 파업이 벌어지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이유를 들어 오래전부터 '월드컵 무파업'을 유도해 왔으며, 언론 역시 "월드컵 불모로 한 파업은 안된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 민주노총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 중의 파업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해외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손나구 교육선전

실장은 "왜곡된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월드컵을 앞세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발상이다. 국가적인 행사를 치른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파업권은 엄연히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국영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이 연봉 삭감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정부와 언론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차분하게 대응했으며, 프랑스는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대회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쥐었다. "월드컵과 노동자의 권리를 분리해서 받아들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프랑스의 진정한 힘이었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전국학생회협의회의 윤수진 의장을 만나

# "평화와 인권위한 활동 펼칠것"

지난 24일부터 3일간 연세대학교에서 제4기 전국학생회협의회의 회(의장=윤수진·연세대 총학생회장, 이하 전학협) 출범식이 진행됐다.

'평화·인권·대학'의 주제로 열린 이번 출범식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자전거 대행진과 평화인권문화제, 기획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4기 전학협 윤수진 의장을 만나 전학협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 전학협 제2건설운동은 어떤 것인가?

= 지난 1기 전학협 때부터 기획했던 '한국대학생연합'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다양한 학생운동 단체를 하나로 아울러 같은 지향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연대체다. 이를 위해 회원 체제를 확충, 소모임까지 넓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류 공간을 만드는 등 학생들에게 한발 더 나가서는 노력을 펼칠 것이다. 전학협 제2 건설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 전학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 전학협은 한국사회 최초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연대체를 표방하며 지난 99년 출범했다. 이후 대우자동차, 한국통신 노동자 등과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단과대 학생회 이상이 주로 참여하는 이전까지의 학생운동 체계를 과·반 학생회까지 참여 폭을 넓혀 보다 큰 의미의 학생 연대체로 발전시켰다.

- 출범식 이후 전학협의 활동 계획은.

= 징병제 반대 및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운동 등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서울 곳곳에서 선전활동과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학생과 민중의 연대 활동이 농촌으로 국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환자를 간호하거나 기지촌 여성들을 돕는 등 모든 민중들과 연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런 활동들은 전학협 제2건설운동과 함께 이뤄질 것이다.

- 또 다른 학생운동 단체인 한총련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갈 예정이다?

= 같은 학생운동 단체이지만 한총련과 전학협 활동의 지향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운동의 방향을 달라지게 했지만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활동하는 것에서 같은 지향점을 발견하고 있다. 한총련 또한 대학생들의 협의체인 만큼 지향하는 방향이 같은 부분은 연대를 통해 함께 활동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동약로 소탐대실



"들어가면 안됩니다." "학교 안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수위 아저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음식물 배달원과 음식물 반입을 막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음식물을 시켰기 때문'이란 이유로 승리는 언제나 배달원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서울캠 총무처는 쾌적한 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을 이유로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조

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교내 모든 건물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라는 글씨가 무색할 만큼 음식물 반입은 계속되고 있다. "어머, 저 오토바이는 왜 저렇게 빨라?" "원래 배달원들은 과속운전 하잖아." 제한속도를 무시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원들로 인해 학생들은 이들을 피하기에 정신이 없다. 또한 실외에 설치된 탁자에 붙어 있는 음식점 홍보 스티커가 다른 스티커보다 접착력이 강해 이

를 떼어 내는 사람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교내 음식물 반입을 막던 수위 아저씨가 배달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음식물 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무처는 다시 교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광고를 통해 구성원에게 반입 금지를 알리고 있다. 또한 배달주문을 받지 않을 것을 음식점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 금지 조치가 강화됐던 1년 전,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지켜졌던 사실은 되새겨 볼적이다. 학교는 음식물 반입 금지를 구성원들에게 꾸준히 알려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학내 주체들은 자신의 편의와 권리만을 내세우기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f55@dongguk.edu

## 대학원 연구논집 원고 모집

2002학년도 대학원 연구논집 제32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대학원 연구논집 제32집
2. 제출지역 :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휴학생 및 수료생
3. 연구논집 원고 모집분야
  - 가. 인문사회전공 : 불교학, 철(인도철)학, 사학, 미술사학, 윤리학, 교육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찰행정학, 사회학, 북한학, 경제(농업경제)학, 경영(정보관리)학, 무역학, 회계학, 지리학, 미술학, 연극영화학 등
  - 나. 자연과학전공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통계학, 반도체과학, 공학, 농학, 임학, 조경학, 가정학, 체육학, 한의학, 의학 등
4. 제출물 : 원고 3부, 디스켓 1장(한글 96 이상으로 작성)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02. 6. 3(월) ~ 8. 23(금) 대학원 교학부 ☎ 2260-3093~5
6. 원고작성요령  
대학원홈페이지(www.dongguk.edu/gs)의 공지사항 참조 할 것
7. 대학원 연구논집 제32집 시행 일정
  - 가. 원고접수 : 2002. 6. 3(월) ~ 8. 23(금)
  - 나. 원고심사 : 2002. 9월
  - 다. 원고교정 및 편집 : 2002. 10월 ~ 12월
  - 라. 연구논집 제 32집 발간 : 2003. 1월 예정



# 21세기 예술 만드는 디지털 기술

## 보는 소리 · 듣는 영상, 진정한 멀티미디어 시대 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들을 각기 독립적인 물리적 대중에 의하여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감각의 기본법칙을 벗어나 음파가 귀를 자극할 때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색상을 느낄 수 있고, 또는 후각과 함께 색상을 느끼는 등 두 개의 감각이 섞이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경계를 넘어서 현상을 공감각이라 한다. 공감각에는 현실적인 경우와 기억 표현적인 경우, 그리고 상상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악을 창조하는 작곡가의 예를 들면 작곡가 메시앙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내면적인 마음의 눈으로 음악과 같이 움직이는 색상들을 본다. 이것은 상상이나 심리적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실체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오렌지색의 화성으로 표현하는 등 음악과 색상을 같은 감각현상으로 공유했다.

이러한 소리와 색상을 현실적 공감각으로 지닌 작곡가들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적인 예술감각을 음악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음악화성의 색채 표현 등 시각예술인 영상의 음악화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공감각이 작곡을 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 절대필요조건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시각을 통하여 경험한 영

상이나 머릿속 상상의 세계에서 그린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소리로서 들으며 음악으로 표현하고, 음악을 내면적으로 색상이나 이미지로 느끼면 작곡을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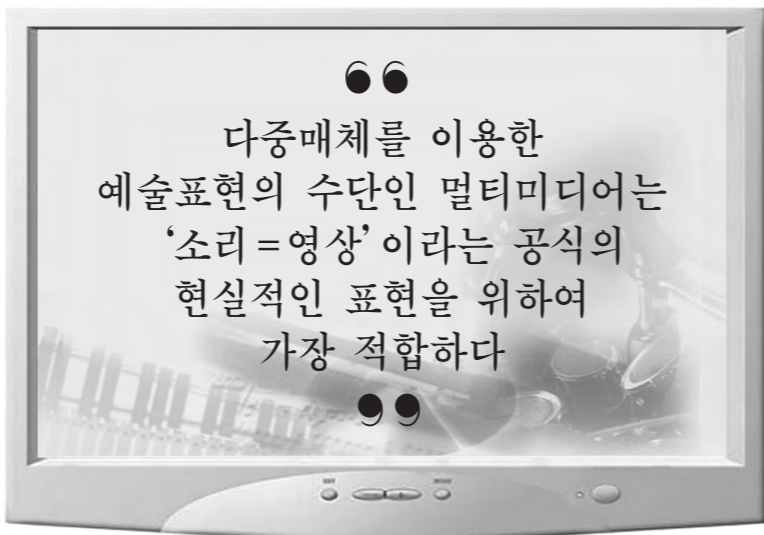
시간예술을 창작하는 작곡가들은 이러한 기억 표현적이거나 상상적인 공감각이 현실적인 공감각보다는 더 필요조건일 것이다.

그것은 작곡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물리적 감각보다는 지각적 감각의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그 음악을 듣는 청중들이 음악에 의한 물리적인 청각현상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경험적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상에 나오는 예술 표현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예술의 유통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감각이론은 현대에 와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소리에 의한 공감각에서 2차 감각현상들 중 영상이나 색상을 공감각이 아닌 실제의 시각각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소리를 이미지로 보여주기를 위한 시도는 20세기에 들어와 전자기기의 발달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날로그 시대의 오실로그래픽(Oscillographic)과 디지털시대의 스펙트로그래픽(Spectrographic)이 있다.

오실로그래픽은 소리의 파형을 보여 주는 장치인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를 이용하여 소리를 시각적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고, 스펙트럼 소리분석을 이용하면 소리의 배음들이 빛과 같은 원리인 스펙트럼으로 분석이 되어 볼 수 있게 된다.



컴퓨터의 발달로 도래한 멀티미디어는 현재의 예술표현을 위한 매체를 중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중매체를 이용한 예술표현의 수단인 멀티미디어는 '소리=영상'이라는 공식의 현실적인 표현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

이제는 소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감각에서 소리의 시각각각이 아닌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실제 영상을 통한 시각각각으로 느끼게 한다.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단순히 수학적 계산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리를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디지털영상의 숫자화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만들어 주는 단순한 기계적인 예술표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인간의 뇌파를 감지할 수 있는 뇌파 센서의 기술 발달 등 제반기술의 발전속도로 볼 때 머지않아 예술가의 창작적 표현감정도 디지털화 될 수 있어 공감각에서의 2차 감각들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작곡가의 창작적 이미지가 음악과 함께 보여진다거나 음악을 듣는 청중들의 상상적 공감각을 직접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는 진정한 멀티미디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김준  
영성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정승현교수의 한의학이야기 (4)

### 변비 원인과 예방법

변비를 호소하는 환자를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줄고 양도 적어지게 되거나 매일 배변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변비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매일 배변을 보지 않더라도 이들에 한번 풀이면 정상 대변에 속한다.

오히려 매일 배변을 하더라도 충분히 배변을 보지 못하여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변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변비는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해 운동이 부족해지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대장의 배출력 약화, 장운동의 저하, 통과장애, 좋지 못한 배변습관 및 부적절한 배변훈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전신적 질병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감자와 바나나를 제외한 각종 채소 및 과일)을 많이 먹는다. 둘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신다. 셋째,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참지 말아야 한다. 넷째,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배변을 본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마(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는 대변의 양상에 따라 질병이 풀리고 심해지는 경과 관찰을 하였다.

대변의 양상이 처음은 딱딱하고 나중이 무른 경우는 질병이 풀리는 것이고, 처음은 무르고 나중이 딱딱한 경우는 질병이 악화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대변의 양상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하여 변비가 오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이렇한 경우(대장이 매우 차서 변비가 오는 경우), 둘째, 위열한 경우(위에 열이 심하여 변기가 오는 경우), 셋째, 간조열한 경우(간에 열이 심하여 변비가 오는 경우), 넷째, 소장 열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변비는 대개 다른 질병이 없이 나타내지만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변비가 중년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경우나 변비와 함께 배변시 출혈이 있는 경우, 변비가 일반적인 예방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변비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변비와 함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다섯가지 같은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단순한 변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 21세기 지식인 사전

####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이자 지식사회의 도래와 옛소련의 해체 등을 예언해 10대 미래학자에 들기도 한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 93).

그는 1909년 재무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와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에서 자랐다. 드러커는 빈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는 미국 클레몽트대 석좌 교수로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93년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펴내면서부터이다. 당시 그는 자본주의가 비록 사회주의를 무력화하긴 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물론 기본 가치에 있어서도 역시 쇠퇴를 향한 전환점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빠르면 2010년 늦어도 2020년에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기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새로운 세상은 한마디로 지식이 자본과 노동을 대체하는 '지식사회'다.

그는 이외에도 기업의 이윤과 비용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었으며, 노령의 나이에도 최근까지 경영자나 관리자 또는 지식근로자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을 제시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있다.

### 부설 연구기관 기획 - ② 교육연구원

## 효율적 교수학습방법 '발전소'

### 강의촬영서비스 ·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방법 제시할 계획

1997년 교육문제연구소로 설립, 2001년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새로이 구성하며 현재 교육연구개발부와 교육매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원(원장=박명희·가정교육, The Research Institute fo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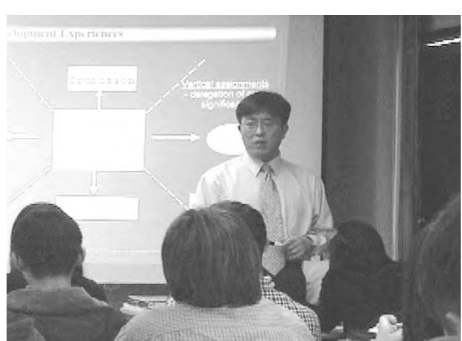
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연구원은 2000년부터 '효율적 교수방법을 위한 동국교육포럼'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과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박명희 교육연구원장은 "교수학습 능력의 개발과 연구는 대학 내부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의 질적 향상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연구원은 올해 역시 교수학습 개발에 집중,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강의촬영 서비스'다. 지난 학기 경영학과 이병철 교수의 '인사관

리' 수업에 처음 시도된 강의촬영 서비스는 자가진단을 통한 강의방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특보적이라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다. 교육연구원은 올해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강의에 필요한 동영상 제작해 주고 강의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학습방법 사례를 제시해 강의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연구원은 '교수학습방법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교수학습방법을 일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분류하고 이 영역을 다시 실험·실습수업, 토론수업, 온라인수업, 세미나수업 등 다양한 수업형태로 세분화시켜 각 수업형태에 따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는 교수학습방법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업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학습동



강의 촬영 서비스

기와 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연구원은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을 위한 교수들의 요구도 설문조사, 수업환경과 직무 분석, 프로그램 설계와 워크숍,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쳐 연구 진행할 예정이다.

한보라 기자  
hviollet@dongguk.edu

## 2002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시행

1. 신청대상  
가. 2002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나. 1차 전공 배정자 중 전공변경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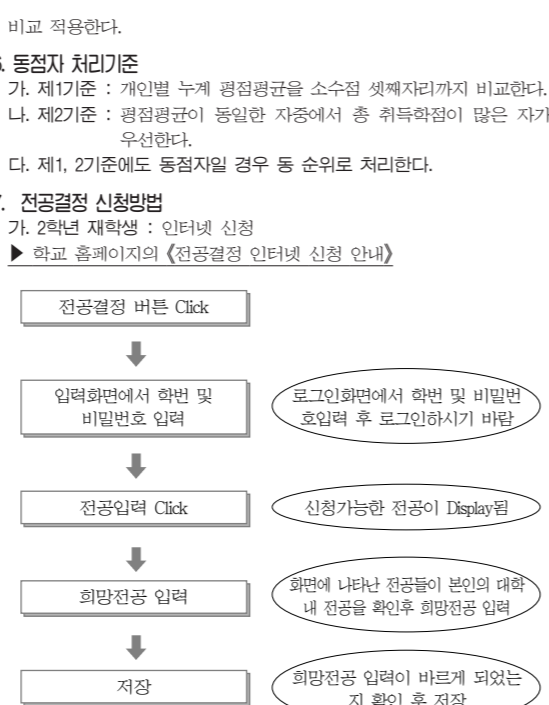
2. 일정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2학년 재학생 : 2002. 5. 27(월) ~ 5. 31(금)  
-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2. 6. 10(월) ~ 6. 12(수) (1차 복학생기)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2. 8. 19(월) ~ 8. 21(수) (2차 복학생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2학년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2. 8. 9(금)까지  
\*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2. 8. 30(금)까지

3. 배정기준  
가.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경제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 2개학기 이수자(조기복학생)  
-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1학년 수료학점(2001학번 기준) : 35학점  
단, 불교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경제학전공은 30학점

4.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일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3. 배정기준 참조)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2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 복학자)의 cut-line 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존정원(150%)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5. 편입학생의 전공결정  
2001년 신입학자의 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기수 부족에 대한 학수유 배정은 하지 않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일반학생과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1) 소속 대학 교과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방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 (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방 미만이 될 수 있다.  
(2)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3) 각대학 교과과에서는 개인별 신청원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란에 날인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접수 전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1. 대상자 : 200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1)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사범계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의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3) 비사범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의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2. 6. 3(월) ~ 6. 7(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조정양식)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사범대학 게시판에서 출력가능함.

5. 교부 및 접수처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 2001학번 영어 PASS제 토익시험 고사실 배치표

고사실	수험번호	강의실명	수용인원	수험인원	방송시설	건물명
고사본부		K208				
제1 고사실	0001 ~ 0150	세미나실1	200	150	카세트(학교)	
제2 고사실	0151 ~ 0210	K201	70	60	중앙방송	
제3 고사실	0211 ~ 0270	K202	70	60	중앙방송	
제4 고사실	0271 ~ 0330	K203	70	60	중앙방송	
제5 고사실	0331 ~ 0390	K204	70	60	중앙방송	9
제6 고사실	0391 ~ 0440	K209	60	50	중앙방송	0
제7 고사실	0441 ~ 0500	K210	70	60	중앙방송	
제8 고사실	0501 ~ 0560	K211	70	60	중앙방송	주
제9 고사실	0561 ~ 0620	K212	70	60	중앙방송	년
제10고사실	0621 ~ 0690	K301	80	70	중앙방송	기
제11고사실	0691 ~ 0760	K302	80	70	중앙방송	년
제12고사실	0761 ~ 0830	K303	80	70	중앙방송	
제13고사실	0831 ~ 0900	K304	80	70	중앙방송	문
제14고사실	0901 ~ 0990	K305	100	90	중앙방송	화
제15고사실	0991 ~ 1080	K306	100	90	중앙방송	관
제16고사실	1081 ~ 1210	K307	140	130	중앙방송	
제17고사실	1211 ~ 1340	K308	140	130	중앙방송	
제18고사실	1341 ~ 1470	K309	140	130	중앙방송	
제19고사실	1471 ~ 1520	K310	60	50	중앙방송	
제20고사실	1521 ~ 1720	L401	300	200	카세트(학교)	동국관M동
제21고사실	1721 ~ 1920	L501	300	200	카세트(학교)	
제22고사실	1921 ~ 2010	M302	100	90	카세트(트루)	
제23고사실	2011 ~ 2100	M303	100	90	카세트(트루)	동국관M동
제24고사실	2101 ~ 2190	M304	100	90	카세트(트루)	
계				2190		

소나기

한국의 중심에 월드컵이 있다(?)



△월드컵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우승하자. △휴강해오.  
 △홍명보형 멋져요!  
 △실감도 안나네 그러!  
 △월드컵16강 가면 누가 돈준대?  
 △전국민의 축제, 전세계인의 축제.  
 그 화려함 뒤엔 한겨울 강추위 속에 철거덩한 삼일동 주민들이 있다.  
 △월드컵 기간동안 시험보지 말자!  
 △한국의 중심엔 월드컵이 있다.  
 △16강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그 똥 중심에서 벗어나겠지.  
 △경제적 이익과 스포츠 문화주의가 있는데, 중심은 무슨... 문화 제국주의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 자본은 외국이 다 빼가고 우리는 허울만 있는 월드컵개최국???  
 △16강만 들어가 대박!!!  
 △월드컵하이팅!! 한국 16강 진출!!  
 △월드컵이 밥 먹여 주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천재일우이다. 고로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자.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정말 지겹다.  
 △월드컵에 집중하느라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면 안되겠지.  
 △월드컵이 끝나면 한국의 중심에는 뭐가 있지?  
 △한국의 중심엔 월드컵이 있고 월드컵의 중심엔 코리아팀이 있다! 코리아팀 핫팅!!  
 △16강이 다 뭐냐!! 1승이나 해 보자!  
 △한국의 중심엔이냐? 한국 변두리에도 월드컵은 있다.  
 △16강이 보이면 이벤트 경품으로 돈이 보이질름~  
 △주저사설도 없는 경기장에서 무슨 월드컵이냐!!  
 △워~워~워~워~!! 대한민국!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도 16강에 80%정도 들어간다.  
 △3개 방송사 중계경쟁에 불붙었네.  
 △코리아팀 파이팅!  
 △한국의 숫돌이 안정환이 있는 이상 16강 진출은 껌이다!!  
 △16강 진출에 태클거는 나라는 가만 안 들거~  
 △꿈이라도 좋다! 4강 안에 들어오!  
 △시험을 택해야 할지, 축구를 택해야 할지...  
 △당연히 축구를 선택해야지!!  
 △이젠 월드컵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조적·주체적인 건전한 축제문화 만들어야

음악과 웃음, 젊은이들의 열기와 패기가 있는 대학 축제기간이다. 축제는 공부에 지든 생활을 잠시 접고서 대학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는 공간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무더위에 맞보는 청량음료 같은 시원함을 준다.  
 하지만 한때 '대학문화의 꽃'이라 불린 축제가 대학생들의 특색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대학 축제라면 일반 축제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는 행사를 개최해 함께 보고 즐기며, 배우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축제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가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 행사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초대 가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점점 축제가 대중적인 인기로 편승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번 경주캠 축제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많은 주민들도 참석했지만 상인들의 과다한 상행위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만을 보고 난 후 우르르 물러나가는 바람에 행사는 아쉬운자리가 되었다.  
 학과나 동아리들이 운영하는 주점도 문제다. 축제의 즐거움과 함께 하는 술

자리, 회원간의 친목과 서비스라는 본래의 목적은 오간 데 없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둔 일부 주점간 과열양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놀이문화로의 흐름은 막을 수 없고 또한 단기간에 상업문화를 추월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축제 문화 형성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 문화화도 영화제 등 건전한 행사에 관심을 모아보자.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해 모든 동국인이 참여하고 즐겨워하는 뜻깊은 축제로 만들자.  
 최미진 (관광대 관광경영)

개성 살릴 수 있는 사진촬영을 바란다

교정의 운치있는 곳곳마다 졸업앨범 사진촬영이 한창이다. 남학생들은 저마다 새싹마냥 말끔한 양복으로 차려입고, 여학생들도 고운 화장과 아름다운 머리손질로 어디가도 빠지지 않을 듯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더군다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앨범의 사진이 취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력서에 붙일 사진이라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녀들이 입고 치장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학과가 아닌 분위기가 있는 카페에 훨씬 더 잘 어울릴 듯한 복장들이다.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이 평소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선배나 후배로 대하는 우리들조차 낯설 따름이다. 이만하면 남들보다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통 정장 한 벌에 2-30만원을 훌쩍 넘어버리고 미용실까지

지 들려서 머리손질과 간단한 메이크업까지 하려면 모두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아직은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이런 비용을 조달하기란 만만치가 않다.  
 사진촬영으로 드는 비용으로 마음 고생하는 학생이나 부모님의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훗날 졸업앨범을 펼쳐 보았을 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서있는 자신을 보면서 학창생활의 추억을 떠올리기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학창시절의 마지막 추억을 담은 졸업앨범에 과연 어떤 복장이 더 잘 어울릴까? 화려하진 않더라도 단정하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던 4년간 즐겨 입던 평상복 차림의 사진 촬영이 학생의 분수에도 더욱 맛을 듯 하다.  
 신봉소 (공과대 건축2)

인간 근원의 모습을 읽는 재미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다녀가는 오페라 극장에 유령이 있었다. 첫 장부터 작품의 저지는 오페라 유령이 실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소설은 각주까지 달아가며 오페라 유령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형식을 띄게 된다. 작가가 눈썹 선인양 뻗뻗하게 소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파리에 살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오페라의 유령 주인공 에릭은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났지만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가면을 쓰고 오페라극장 지하에서 살고 있다. 세상에 대한 저주와 광기로 숨어살던 에릭도 결국 사랑이란 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만다. 그에겐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여자, 크리스틴. 에릭은 그녀에 비해 너무나도 추한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가면 뒤에 숨어 목소리만으로 그녀를 만난다. 그러나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청년 라울이 등장하고 오페라극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사태를 급박하게 휘몰아가고 집착

에 가까운 에릭의 사랑도 결국 목숨과 함께 끝나고 만다.  
 오페라의 유령은 추리소설이지만 단순히 추리적인 재미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인간이 지닌 근원적 고통과 갈등의 모습은 에릭의 그로테스크한 사랑을 통해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민경환 (문과대1)

생협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서울캠 학교 식당은 그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복원과 동국관의 학생식당 등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식당들이다. 이러한 식당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사적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학생들과 그밖에 생협 조합원(교수, 학생, 직원, 생협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식당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다. 주된 문제점은 식당에 대한 음식의 질에 대한 것과 식당직원의 불친절 문제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생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생협은 학생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 운영에 대해 직접 조합원들이 참여하며 이익에 대해서는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시키고 있다.  
 생협에 대한 학생들의 주인의식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생협이 우리 동국대의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형준 (문과대 중문4)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다단계 판매 기사 인상적

지나호 동대신문에서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읽었던 기사는 해설면의 다단계 판매에 관한 기사였다. 얼마전 뉴스에서 다단계의 폐해를 고발하는 많은 내용들이 방영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다단계에 빠져 사기로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한 돈을 총합할 수 없어 카드 빚에 시달리는 사람,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에 실린 피해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평소애 겪을 수도 있는 내용이 동대신문에 실려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와 불법 다단계 판매 선별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 글은 우리가 다단계에 쉽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줄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 노력한 만큼 벌고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풍토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돈에 이끌려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기



〈제1343호 5월 20일자〉

사를 통해서 건전한 직업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사를 읽으면서 다단계 판매의 원인이었던가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부족한 것 같다.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소개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진원 (경영대1)

문제점 지적 없어 아쉬워

지난 신문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사는 주제 기획면의 사회봉사에 대한 기사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반가운 기사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회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주말이나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힘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할 경우 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잃은 채 자칫 시간 때우기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또한 봉사 활동의 내용이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흥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소진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봉사활동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봉사활동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획은 봉사활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나 봉사활동의 이면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조덕행 (인문대 사회복지4)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특목 특는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월드컵 개막일=우리의 300일.  
 △주영이 형 생일축하드려요! -셋비밀 일동  
 △화인아 생일 축하한다. -ROTC일동  
 △경영대 사회부장 김준호의 생일 축하해요. J·K와의 뜨거운 연애 잘하거라.  
 -인옥 누나  
 △진호 오빠랑 민수 언니 100일 축하해요.  
 -J·M  
 △동계구름 정기공연 축하합니다. -졸업생  
 △미순누나 애인 생긴 거 축하축하!!! 이쁜 사랑하세요.  
 △연극과 통통 형의 득남을 축하합니다.  
 -후배 형석

수고하셨습니다

△동국문화회 여러분 시화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은 선배가  
 △수학교육과 동문 체육대회를 준비한 '알짜배기 짱님과 아이들' 수고하셨습니다.  
 △DUPA 4강! 비록 체교에 져지만 그 날의 투혼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국교과 성수, 일규 군대 잘 가라. 학교 다니느라 정말 애썼다.

△윤리문화학과 학우님들 선영오빠 그리고 교수님들 답사갔다 오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공동체, '주성치 영화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지교과 학우 여러분 1학기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올름도·묵도 감사갑시다!  
 △LAE 회원 여러분 열심히 해서 올 가을 에도 우승합시다.  
 △독일학과 02시험 잘치자. -표  
 △뽕박질 동호회 서울 마라톤 참가자 10명 모두 무사히 완주합시다.  
 △탈 '비우그라' 공연 준비 잘하세요!!  
 △현정아. 며칠 안 남았다. 마무리 잘 하고 최선을 다 하렴! -해경언니  
 △단풍연 정기공연!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공연 해봐요.

그리고...

△도서관에 방문금지 해주세요.  
 △저와 C.C 할 여학우를 구합니다.  
 -전자97 이선정 (016-804-6326)  
 △연소야! 빨리 캠퍼스야! 너 없으니까 평균 연령이 높아만 간다. -춘  
 △울프장학금을 만들어 주세요.  
 △한국 16강을 기원합니다. -똥

온방글

축하합니다

△경미와 종석이의 500일을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길... -삼크미 언니가  
 △사랑하는 윤희야!! 21번째 생일을 축하해. 새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라. △가가벨! 500일 함께 못해서 슬프지만 항상 같이 하자. ♡해.  
 △우리 방구리(방훈이)오빠 생일 축하! △희숙아! 임석 가요제 대상 먹은 거 축하해.  
 △은혜언니. 전사회 정말 축하해요.  
 △재관아형, 부산 소방직 합격 축하해.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기간 온방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분과, 화학제전 수고하셨습니다  
 △교생 실습 나오신 김은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은이  
 △지난 일주일 내내 교내 교통 정리하신 행병대 전우회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블 마이크 앞에 서 계시던 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몽치, 주막(?)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임석 가요제... 형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삼 아가씨,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2002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응원합시다. -축구의 황제(?) 승환  
 △우체국 직원 여러분, 웃음과 함께 열심히 일해주세요.  
 △은진아, 사회 속 작은 위치에 있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네가 되길 바래.  
 △익동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Roommate  
 △쳐키링, 포라이~ 아저씨 잡아와! △기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다.  
 △연아, 진아. 이번 주부터 다도 열심히 배우자.

그리고...

△규미상, 세번째 장학금 기대해도 되지? △슬픔까지도 때론 아름다울 수 있어. -from k(김기영)  
 △보양이랑~쫄절이랑~사랑해♡  
 △김호진! 제발 씻고 다녀라.  
 △병닭아! 닭들이 같이 못해 아깝다.  
 △합쓰~ 네게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빈다.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금주의 식단

서울캠	월(5/27)	화(5/28)	수(5/29)	목(5/30)	금(5/31)
동국관	쇠고기해장국 (1500) 너비아니백반 (1500) 얼무비빔밥 (1500)	꼬치어묵국 (1500) 체육갯잎볶음 (1500) 닭도리탕 (1500)	육개장 (1500) 오징어김치볶음밥 (1500) 순살돈가스 (1500)	혈서어찌개 (1500) 양념치킨 (1300) 떡볶고기 (1500)	사골곰탕국 (1500) 계맛살탕수 (1300) 오무라이스 (1500)
상록원	부대찌개 (1500) 해물칠리볶음밥 (1500) 산채비빔밥 (1500)	돈육볶고추찌개 (1300) 소고기카레라이스 (1500) 치킨가스 (1500)	사골우거지탕 (1500) 체육볶음밥 (1500) 순대이채볶음 (1500)	소고기피망볶음 (1500) 오징어덮밥 (1500) 족발 (1500)	호박돈육찌개부탄 (1500) 달걀비 (1500) 콩나물밥 (1300)
교직원	복어해장국 (3000) 버섯불고기 (3200)	알탕 (3200) 닭강정 (3200)	야채전골 (3000) 참치회덮밥 (3000)	초밥우동 (3000) 참치김치덮밥 (3000)	스파게티 (3200) 닭치볶음 (3500)

경주캠	월(5/27)	화(5/28)	수(5/29)	목(5/30)	금(5/31)
학생회관	순두부찌개 (1300) 오징어제육덮밥 (1600) 전주비빔밥 (1800) 육개장 (1800)	떡전골 (1300) 카레라이스 (1500) 헬이채볶음밥 (1800) 냉면 (1800)	복어김치국 (1300) 참치어채비빔밥 (1500) 치킨가스 (1700) 육개장 (1800)	오징어찌개 (1300) 미미두부덮밥 (1500) 쇠고기볶음밥 (1800) 냉면 (1800)	호박고추장찌개 (1300) 김치볶음밥 (1600) 잡채밥 (1800) 육개장 (1800)

# 대동제가 '하나되는 장' 이라고요?

## 장애인 등 소수 소외시키는 축제문화 ... 참 의미 되찾아야

당신은 지금 대동제를 즐기는 중이다.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사 먹고 불꽃선도 던져 본 후 여장차림 남학생들의 춤도 구경했다. 곧 어둠이 밀려오면 사람들과 불 밝힌 주점에 모여 앉아 술과 안주. 그리고 긴 이야기로 대학생활의 낭만을 채울 것이다. 잠깐 여기서 화면정지. 당신을 둘러싼 대동제의 평범한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본교에서 2년째 대동제를 경험하고 있는 유지는(정외2) 양은 "학내에 분명 장애학생이 있을 텐데 대동제 기간에 그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보아온 대동제의 풍경 속 어디에도 장애인은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점이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즐겼을 만한 주점은 장애인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복잡한 주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휠체어를 탄 경우 들어가 함께 할 자리조차 없

다.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학생은 순가락이나 빨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를 여분으로 준비한 주점도 많지 않다.

이에 연세대 장애인권동아리의 김종환(대기과화3) 군은 "안전한 좌석을 따로 마련하는 등 작은 배려만 있다면 주점 뿐 아니라 강연회, 공연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동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원인을 잘못된 대학축제문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많이 마시기, 오래 버티기 게임 등 의미없이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는 놀이와 소비 위주의 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내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본교 장애인 인권 행동위원회(이하 행동위)의 강성진(사과대2) 군은 "일차원적인 소비·향락

위주의 대학축제 문화가 비장애인 중심의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동제 기간에 장애인 인권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장애인 학생들이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대동제 기간에 경주캠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해 서울대 등 몇몇 대학이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체험이나 연세대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가 그림물감과 붓을 이용해 실시한 '장애인 수업권 쟁취를 위한 그림서명'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본교 행동위의 한 관계자는 "단과대,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모여 즐기는 현재 대동제 방식에서 장애인 인권을 알리는 학내 행사가 지속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해 이같은 행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을 시사했다.

한편, 대동제 속 여성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시 정지하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불꽃선이 달려 있는 나무판에는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남장여자 차림의 학생들은 색시한 춤을 취 큰 호응을 이끌어 낸다. 여성의 성이 구경거리가 되는 순간이다. 본교 서울캠에서는 불교도주간 중 진행된 '미스 야수다라 대회'가 미스코리아 등 기성 미인선발대회와 유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축제가 소중함 까닭은 소수와 다수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소수의 목소리를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대동제에서 장애인 학생과 성 주제로서 여학

생이 소외되는 축제문화를 바로잡는 일은, 어쩌면 올해 많은 대학이 대동제의 모토로 정한 '미(美)치는 일'만큼이나 시급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당신이 들어 있는 대동제의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자. 축제를 즐기는 장애인과 당당한 성 주제로서 여성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 의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 ② 미술창작과 그림공장

## 이미지 '마술지팡이'로 대중 참여와 관심을



끝없이 펼쳐진 황갈색의 광활한 사막. 하늘을 누렇게 덮으며 불어오는 모래바람 사이로 한 무리의 젊은 이들이 저 멀리 오아시스 주위에 꽃이 만발한 초목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 화관과 붓, 조각도 등을 손에 들고 걷는 그들의 얼굴은 모래와 땅으로 얼룩졌을지언정 표정만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횡랑한 사막을 활짝 웃는 얼굴로 건너는 사람들, 미술창작과 '그림공장'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지난 99년 준비,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그림공장은 대학시절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해 온 아홉 명의 미술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통일'이라는 주제 의식 아래 조소,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 걸쳐 독특한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림공장의 대표 인승지(32) 씨를 만나 의식을 형상화하는 도구로서 미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래패는 많은데, 미술창작패는 거의 없었죠."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전공분야이기도 한 '미술'이라는 시각매체였다. 각자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

할 수 있는 분야인 동시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 전문적인 미술창작패가 거의 없는 현실 또한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구요?"

이들이 모인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함께 기획회의를 하며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작품의 규모에 적당한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맡아서 제작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감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다는 행위에서 각인되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미술은 장르의 특성상 전시되는 작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노래테 앞이나 문서관람 널리 퍼지기는 어렵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만평 등 일부만이 인쇄매체를 통해 배포될 수는 있지만, 조각이나 규모가 큰 설치작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전

사회장에 와서 보지 않는 한 접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미술에 희망을 거는 까닭은 순간적으로 던져진 이미지가 주는 강렬한 인상이, 시각매체에 익숙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없이 공감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미에서 행복한 통일로 이어집니다."

그림공장은 활동을 전개한 이래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기획전시회를 가져왔다. 2000년에는 매항리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전시회의 주제는 미군의 학살만행이었다.

그리고 올해의 기획전시는 '6.15 남북공동선언 두돌맞이 기념전-행복한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림과 사진, 조소 작품 등을 전시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도 미술이라는 예술장르를 통해 통일을 향한 염원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림공장 사람들은 오늘도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클릭! - 포토이토(www.fotato.com)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빛바랜 흑백사진을 모아 만든 액자를 볼 수 있다. 졸업장을 들고 수줍게 웃고 있는 고모의 어린 시절부터 군복을 입고 멋지게 폼을 재는 삼촌, 사돈에 팔촌까지 참석한 누구누구의 결혼식 사진까지, 그 액자 속에는 그렇게 한 집안의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순간을 찍은 사진이 하나의 기억으로, 혹은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사진전문 사이트 '포테이토(www.fotato.com)'는 이러한 사진의 매력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개설되었다. 수많은 사진 관련사이트들이 갤러리 위주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반면, 포테이토는 방대한 양의 문서자료까지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정리

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주제별 이미지 찾기'는 200만여 장의 사진을 디렉토리 맵으로 만들어 자료찾기를 보다 간편하게 했으며, 'Fotato Webzine'은 각종 논문, 유명 잡지의 글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목록화 했다.

또한 국내의 유명작가 및 참신한 신인을 발굴해 소개하는 'On/Offline Gallery'나 전 시작가 인터뷰, 작가 작업실 탐방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전문가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포토닥터제'는 포테이토가 단순히 사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교환의 장소'가 아니라 사진찍기의 매력을 교류하는 '나눔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지금 즉시 사진이나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면 포테이토를 클릭하라.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와 같은 '찰칵' 소리에 경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사진전문 포테이토를 통해 사진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문화단신

### 2002 제6회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2002 제6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와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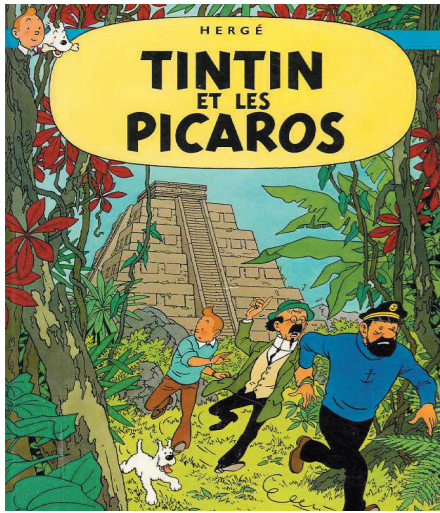
'전쟁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권영화제는 개막작 '아프간 전쟁'을 비롯해 '후세인의 미친 노래'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일본군 악마' 등 8편의 전쟁영화를 포함한 국내외 작품 총 35편을 무료 상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불가 방침으로 논란이 일었던 단편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상영도 눈길을 끈다.

매체비평

만화 편 - 뽕뽕의 모험

문화 자존심과

진지한 만화창작의 과제



한 소년 신문기자의 모험을 다룬 프랑스 만화 '뽕뽕의 모험'.

프랑스인들의 자국민화수호노력은 '뽕뽕'이라 불릴 만큼, 지구촌에 소문이 자자하다.

이런 프랑스가 "미국의 윌트디즈니 만화도 만화냐"며 대갈일성을 터뜨리며 자랑하는 만화, 그게 바로 '뽕뽕의 모험'이다.

'아스트릭스'와 함께 뽕뽕의 모험은 프랑스라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유럽인들 모두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있다.

뽕뽕의 모험은 1929년 조르즈 레미(필명 에르제, 1907~1983)가 벨기에의 한 어린이 신문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첫선을 보였다.

뽕뽕의 모험은 1930년에 '소비에트 땅에서의 뽕뽕'이 출간됐다. 발표된 지 73년만 모두 24권의 단행본이 발간됐고, 60여개국에 번역되어 3억 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뽕뽕의 인기요인은 출생 당시의 유럽만화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0년대 유럽 만화계는 미국만화의 수입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었다.

뽕뽕은 아동만화이면서 동시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시사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만화가 보여주는 보편적 가치에는 다분히 유럽 중심적인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우리의게도 학습만화, 교양만화 등으로 불리는 장르가 있다. 오락과 교육적 기능을 합체시킨 만화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뽕뽕의 모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만화창작'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관심 끌게 한다.

메아리

NO.1

▲'you still my no.1~'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소녀 가수 보아. 그녀의 2집 앨범 타이틀곡 'NO.1'에는 이번 앨범을 통해 세계 제일의 가수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가 한동안 'NO.1'의 자리를 지키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역시 이회장은 'NO.1'이었다. 지난 22일에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그는 'NO.1'의 입지를 유감 없이 보여줬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통일 선언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의 통일방안에 공감성이 있다고 인정할 역사적인 일이다.

▲자신이 부른 노래의 제목처럼 바라던 'NO.1'의 자리에 오른 보아. 그리고 반통일 세력의 'NO.1'임을 자처하며 모든 이

문화를 읽는 길거리 음식이 좋더

거리로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패션과 스타일은 많이 달라졌다. 웃은 화사해지고 표정은 밝아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화의 흐름에 가장 민감했던 계층이 젊은 세대였음을 확연히 표징하는 것이다.

단지,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비해 변함없는 것은 젊은이 발산하는 상큼한 웃음과 약동하는 생명력이다.

변하는 것

거리의 먹거리 역시 많이 변했다. 길다방이라 불리던 자판기 커피 한 잔을 하나 뽑아 들고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조심스레 사랑을 고백하던 시절에는 생각조차 힘들었던 다종다양한 테이크아웃 커피를 보면 커피 물, 프림 물, 살탕 물의 자판기 커피에 길들여진 내 허깨비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러도 여전히 거리를 지배하는 먹거리의 제왕은 선연한 붉은 빛깔로 행인들을 유혹하는 맛갈스런 떡볶이와 칼칼한 소주 한 잔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순대와 시원한 오뎅국물을 곁들여 꼬치에 끼워 파는 어묵이라 하겠다.

튀김의 위세와 핫도그의 권력도 견제하다. 요즘은 핫살이 꽤 따가운 계절이라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접하기 힘든 것이 아쉽다.

거리의 먹거리를 일별하는 즐거움과 동시에 그래도 드문드문 떠오르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전에 비해 값이 많이 오른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패스트푸드점들의 공세에 대한 자구책 차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즐겨 왔던 거리의 먹거리들의 맛 또한 점점 자극적이 되어 간다.

우리 교유의 낯익고 친숙한 음식 대신 패스트푸드점의 메뉴들을 급하게 모방한 것 같은 조악한 먹거리들은 외려 거리의 먹거리들을 대중으로부터 괴리시키는 역효과를 왕왕 빚기도 한다.

변하지 않는 것

거리에서 먹거리를 파는 이들의 생계의 곤란함과 생활의 팍팍함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월드컵과 같은 큰 국제행사가 치러질 적마다 가장 먼저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구석으로 밀려나는 약소한 역시 내가 대학교 새내기였던 올림픽이 열린 그 해와 하등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얼마 전에는 공중위생을 강화한다는 구실로 대표적인 거리의 먹거리인 떡볶이를 노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조치가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낸 바 있다.

문화상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나라 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맛보며 전통문화의 진수를 체험한다고 한다.

떡도날도 햄버거와 KFC 치킨과, 도미노 피자를 먹기 위해 이곳 한국까지 날아올 외국인들은 없을 것이다.

공 회 준 시사평론가



먹거리 풍경

섞어먹어 맛있는, 퓨전

꽤 오래 전부터 계속되던 퓨전열풍이 최근 2,3년 사이 길거리음식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됐던 풀타래는 중국에서 받아들여 풀과 엇기름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만의 맛을 개발한 것.

밖에서 먹는 즐거움, 테이크아웃

원래 테이크아웃이란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식사형태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달씨가 무더위까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천연주스와 코코넛 열매 껍질이 바로 테이크아웃 바람에 덕을 본 셈.

클러먹는 재미, 메뉴의 세트화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세트메뉴가 길거리음식 판에도 등장했다.

가령 순대를 만나 '떡순이'로, 김치전을 만나 '김떡순'이라는 식의 세트메뉴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요즘 24시간 내내 강정만 생각한다. 맛과 모양은 물론, 포장과 유통까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강정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개발 중인 새우강정의 비린내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성들의 미용에 좋은 한방강정을 만들고 싶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거리에서 찾은 우리의 전통과자

"정겨움 묻어나는 손맛이 제일"

노점상 단속 ... 활력넘치는 거리문화 방해할 뿐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거리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리 풍물이 있다. 바로 와플, 핫도그, 미니피자 등 젊은이의 입맛에 맞춘 외국음식들이 그것이다.

인사동 거리에서 강정을 팔고 있는 이영석(53) 씨를 만나 이와 관련해 길거리음식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강정을 노점에서 팔 생각은 어떻게 했나. = 15.8년 동안 전국노점상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노점을 보았다. 그러나 떡볶이, 붕어빵 등 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 팔고 있는 들깨·식혜·쌀·보리·누룽지 강정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나 스스로 체득한 것이다.

- 길거리음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 대부분 고운에서 즉석으로 만든 것이라 식중독의 위험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위생과 거리 미관을 이유로 없애려고 한다. 게다가 월드컵을 맞아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노점상을 없앤다는니 축소시킨다는니 하는 정부의 정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길거리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그 거리문화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문화자원이 될 것이다. 내가 거리에서 직접 강정을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최근 외국음식의 거리 잠식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람들의 입맛이 날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거리음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노점상들이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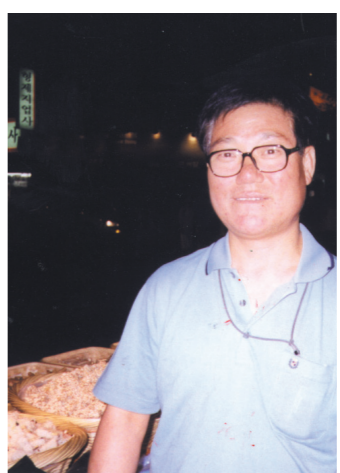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은, = 요즘 24시간 내내 강정만 생각한다. 맛과 모양은 물론, 포장과 유통까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강정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개발 중인 새우강정의 비린내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성들의 미용에 좋은 한방강정을 만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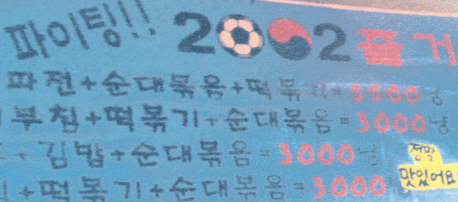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위에서부터 꿀호떡, 으عن 감자 샐러드, 꿀디래, 떡볶이와 튀김.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you still my no.1~'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소녀 가수 보아. 그녀의 2집 앨범 타이틀곡 'NO.1'에는 이번 앨범을 통해 세계 제일의 가수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가 한동안 'NO.1'의 자리를 지키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기를 주장하는 것은 오만한 자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 말한다

로 대립을 반복하던 것을 볼 때, 2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들의 'NO.1'이 되고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회창.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서 통일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언급한지 몇 시간도 안 돼 주위담는 경솔한 모습은 그가 한 나라의 'NO.1'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